

집행기한 단축... 지자체 예산 불용 사태 오나

지방재정법 개정... 다음연도 2월시 당해연도 12월로

항만·농수산 보조사업 등 비상... '탄력 운용' 목소리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 '출납폐쇄(예산집행)기한'이 2개월 단축돼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예산불용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예산 집행기준이 그동안 '다음 년도인 2월 말까지'에서 올해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타 부처와의 행정협의 과정을 거치는 항만사업이나 생물(生物)관련 중요 구입시기를 맞춰 사업비 집행이 불가피한 농·수산 보조금 사업들은 '출납폐쇄기한'(12

월 31일)을 넘길 수밖에 없는 현행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방파제 증축이나 개·보수 공사나 항만내 준설공사 등은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정부(해양수산부) 산하인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에 해역이용 협의와 전남도에 공유수면 매립 협의의 등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협의 과정을 거쳐야 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수산 지원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생물을 기르는 해조류 양식(김, 미역, 다

? 출납폐쇄(예산집행)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회계연도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한 지출행위가 마감되는 기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2015 회계연도부터 12월말로 변경됐다.

시마)은 중요 구입시기(연중 9~10월)를 맞추다 보면 연말 사업준공이 어려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으로 해를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부처 사업비 내시에서 사업자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앙-도-시·군-읍·면까지 수많은 경우과정을 거치다 보니 사업시기를

놓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들이 오히려 예산불용, 예산낭비 등 역기능 사태를 맞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농·수산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모든 사업을 조기발주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한 발상이지만, 중앙부처의 일사불란한 처리 제재와는 달리 지자체의 중요구입에 따른 사업시기와 복잡한 과정을 감안해 '출납폐쇄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중앙정부는 일선 지자체와는 달리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을 당해연도인 12월 31일로 시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마랑 놀토 수산시장

강진 착한한우 직매장

등심 등 20% 할인 판매

강진 마랑항에 가면 청정해역 수산물과 최상등급 소고기를 함께 맛볼 수 있게 됐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 마랑항 중랑파에서 열리는 '마랑 놀토 수산시장'에 강진 착한한우 소고기 직거래 판매장을 매월 넷째주 운영한다.

지난 23~24일 이틀간 첫 운영시 830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강진착한한우 직거래 판매장은 강진-완도축협이 주관하는 이동판매차량에서 한우등심 1등급부터 시중가보다 20% 할인해 판매할 예정이다.

시중가 9000원이상 거래되는 한우 등심 1+등급(100g 기준)이 중간 유통이윤 없이 직거래로 7660원에 판매된다.

수산시장에서는 '5대 먹을거리'와 '7대 살거리' 등 청정해역의 풍부한 해산물과 최상등급 한우 먹을거리를 함께 공급해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놀토 수산시장의 키워드는 직거래로 유통과정을 '확' 줄이는 혁신으로 비교적 비싼 횡간과 견어불, 최상등급의 소고기까지 값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진착한한우'는 강진군이 지난 2013년부터 한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무더위 잊은 정검다리 건너기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10일 장흥군 토요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탐진강을 가르지른 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 장흥군은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장흥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흥군 제공>

득량만 생태환경 모니터링... 청정해역 선포한다

장흥군 연안 읍·면과 바다살리기 캠페인 쓰레기 수거도

장흥군은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득량만 일대의 갯벌오염도와 영양성분 분석 등 환경상태를 모니터링 해 '득량만 청정해역 선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깨끗한 바다 생태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확보해 체계화하고 무산 김과 매생이 등의 친환경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는 방침이다.

군은 연안 5개 읍·면에 매년 순차적으로 '바다살리기 캠페인'행사를 개최해 관내 모든 어업인 및 기관단체와 직접 정화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은 11일 안양면 수문해수욕장에서 지역 어촌단체와 군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다살리기 캠페인'을 갖고 해안쓰

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 어민과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득량만 연안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항구적인 보존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 관계자는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바다환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미 성공을 거둔 친환경 무산 김과 매생이, 미역 등 친환경 수산물의 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 청자축제, 내실 있는 경영형 축제로

7개 분야 83개 프로그램 확정...8월 1~9일 개최

'제43회 강진 청자축제' 세부 프로그램이 확정됐다.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윤부현)는 지난 9일 2차 회의를 열어 7개 분야 83개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올해 축제의 기본 방침을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경영형 축제 ▲프로그램 정미로 알차고 내실있는 축제 ▲창조적이고 매력적인 축제장 조성하고 행사 운영으로 명품축제 육성 등으로 잡았다.

후속 대책으로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참신하고 매력적인 볼거리 제공

을 위해 '청자운반 행렬 공연'을 비롯해 '전국 화목가마 장작 패기대회', '환상적인 빛의 향연 청자 레이저 쇼' 등 신규 대표 프로그램(Killer contents)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청자판매 활성화를 위해 청자 전용쿠폰 발행과 차량 및 해외여행 상품권이 걸린 경품 이벤트 등을 추진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 축제인 제43회 강진청자축제는 오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강진군 대구면 고려정자요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영암경찰 '전담경찰관제' 운영 학교폭력 73% 줄여

영암경찰이 청소년 눈높이 소통창구를 마련해 학교폭력 사고를 줄이고 있다.

영암경찰서(서장 민성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3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영암경찰은 올 상반기에 전담경찰관의 연락처와 사진이 담긴 'SPO 홍보 게시판'을 각 학교 교실에 부착·운영한 결과 전년도 대비 학교폭력 사건이 73%나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홍보 게시판은 전담경찰관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다. 또 각 학교 전담경찰관의 연락처를 핸드폰



에 입력하면 전담 경찰관과 SNS를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영암경찰은 "올 상반기 동안 SPO 홍보 게시판에 총 2000명의 학생이 참여해 120명의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 및 소정의 상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

해수부 오늘 '강진만 해역환경변화 조사용역' 설명회

해양수산부는 12일 오전 10시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만 어업피해 관련 2013년 국무조정실 협의안이 반영된 '강진만 해역환경변화 조사용역'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강진만 어업피해 추진위원회와 강진군 수협, 어업인들을 비롯해 강진원 군수와 황주홍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담당자, 용역 연구진 등이 참여해 해양수산부 용역 내용을 설명하고, 강진군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강진군 어업인들은 지난 2011년 1월 "장흥댐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어업피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201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의 조정에 따라 해수부, 수자원공사, 강진군 3개 기관의 용역비 공동부담을

통한 강진만 어업피해조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활동을 펼쳤지만 지난 2012년 7월 해양수산부(목포청)의 '용역비 참여불가'로 결렬됐다.

이어 2013년 9월에는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대안 논의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강진만 해역환경변화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강진군과 수자원공사는 용역비 공동부담을 통해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4년 해수부 용역을 위한 예산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강진군 어업인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올해들어 강진군과 황주홍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정부예산 3억원을 확보, 전남대와 목포대가 컨소시엄을 구성, 용역을 시행하게 됐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1층	편의점, 소매점	잔여 128㎡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문의바람,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센터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2633-1100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수익형 고층 아파트 특별분양 (한정 세대)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아파트 명가 호반건설)

특별분양가 총 5,350 만원

1. 풀옵션 올리모델링 42㎡, 전용비율 70% 이상
2. 수익률 15~16% (전국 최고 수익률, 관리비 저렴)
3. 나주혁신도시 근거리 위치 / 동신대 정문 앞
4. 미래가치 최고, 신세계 전남, 광주 프리미엄 아울렛 예정지 입구
5. 오피스텔의 반값 / 2배의 가치와 만족도
6. 선착순 동호수 지정, 19세대 한정

Tip

- ✓ 전세 3,900만 ~ 4,200만
- ✓ 월세 가능, 486세대(대단지), 주차 완비

스타공인중개사 (대표: 정재호) ☎ 010-3419-9100